

Session 4 Abiding in Love: The Ultimate Reality of the Kingdom

04 사랑 안에 거하기: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실재

I. THE ULTIMATE REALITY

궁극적 실재

- A. The Holy Spirit's first agenda is to establish the first commandment in first place in the Church. Jesus referred to Deuteronomy 6:5 and then defined loving God as the first commandment, thus identifying it as the highest priority to God and the first calling in our life and for every ministry. 성령 하나님의 첫 번째 아젠다는 교회 안에 첫 번째 계명을 첫 자리로 세우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신명기 6:5 절을 언급 하신 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규정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에게 최고의 우선순위로, 우리의 삶에서와 모든 사역을 위해서도 가장 첫째되는 부르심이라고 확인해 주셨다.

³⁷*"You shall love the LORD..."*³⁸*This is the first and great commandment."* (Mt. 22:37-38)

³⁷...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³⁸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 22:37-38)

⁹*"As the Father loved Me, I also have loved you; abide in My love."* (Jn. 15:9)

⁹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 15:9)

- B. The command to love God with all our heart does not begin with us. It is one expression of the ultimate reality of the kingdom that existed long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namely God's heart that burned with perfect love within the fellowship of the three persons of the Trinity.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훨씬 이전부터 있어 왔던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실재의 한 표현으로, 다시 말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분 교제 안에 있는 완전한 사랑으로 불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한다.
- C. God is love—wholehearted love (1 Jn. 4:16). The very being of God is wholehearted love. Wholehearted love is first in God's personality, and it is first in the relationships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From eternity past, God has loved God with all of His heart, mind, and strength. God the Father loved the Son. God the Son loved the Spirit. God the Spirit loved the Father and the Son, etc. God is fully satisfied in the deep fellowship within the Godhead. 하나님은 사랑, 전심의 사랑이시다 (요일 4:16).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전심의 사랑이시다. 전심의 사랑은 하나님 성품 중의 첫 번째이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님과 관계에서도 첫 번째다. 영원의 과거에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셨다. 성부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사랑하셨다. 성자 하나님은 성령님을 사랑하셨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안의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완전히 만족하셨다.

- D. We must see the first commandment in its eternal context of the fellowship in the Godhead instead of it being merely one aspect of kingdom ethics. He wants us to respond in wholehearted love because it is *who He is* and *who He created us to be*. We were created in His image for wholehearted love. It is the core reality of our relationship with God and the essence of salvation. 우리는 반드시 첫번째 계명을 단순한 하나님 나라의 윤리들 중 하나로 보는 대신 삼위일체 안에서의 영원한 교제의 맥락에서 보아야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의 사랑으로 반응하길 원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심의 사랑을 위해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핵심적 실체요 구원의 본질이다.
- E. There is nothing more important than God's desires. His infinite power and great wisdom are employed to carry out His desires—they are used to establish His plan to fill the earth with love. 하나님의 갈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분의 갈망을 이루기 위해 그분의 무한한 능력과 크신 지혜는 세상을 사랑으로 채우시기 위한 그분의 계획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진다.
- F. The love burning in God's heart has at least five distinct expressions that are deeply interrelated. 하나님의 심장에서 불타는 사랑은 서로 깊은 상호연관이 있는 적어도 다섯 개의 분명한 표현을 가지고 있다.
1. **God's love for God:** Each person in the Trinity intensely loves the others with all their heart.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삼위일체 안에서 각각의 하나님이 온 마음으로 서로를 강렬하게 사랑하신다.
 2. **God's love for His people:** He loves His people with all of His heart, mind, and strength. He loves the redeemed with the same intensity that He loves within the fellowship of the Trinity. **그분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 사랑하신다. 그분은 삼위일체 교제 안의 동일한 사랑의 강렬함으로 구속한 이들을 사랑하신다.
 3. **Our love for God:** God's very own love is imparted to His people by the Spirit (Rom. 5:5).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이 소유하신 그 사랑이 성령에 의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전해진다. (로 5:5)
 4. **Our love for ourselves:** We love ourselves in God's love and for God's sake.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
 5. **Our love for others:** We love others in the overflow of experiencing God's love (1 Jn. 4:19). **다른 이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는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침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 (요일 4:19).
- G. These five expressions of love constitute what I refer to as the *fellowship of the burning heart*. Our greatest destiny is to participate in the burning love within the fellowship of the Trinity. 이 다섯 개의 사랑의 표현들이 내가 불타는 마음의 교제라고 언급하는 것을 구성하는 것들이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부르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속에 있는 불타는 사랑 안에 참여하는 것이다.
- H. **Abide in love:** We are to abide in or *stay focused on* living in His love in its various expressions. God loves us with the same intensity that God loves God (Jn. 15:9; 17:23).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는 다양하게 표현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집중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동일한 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요 15:9; 17:23).

⁹*“As the Father loved Me, I also have loved you; abide in My love.” (Jn. 15:9)*

⁹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 15:9)

- I. The truth of the *abiding in love* is developed in John 13-17. These chapters give us insight into Jesus' life of abiding in God and the nature of God, His kingdom, and our relationship to Him. 사랑 안에 거한다는 진리는 요한 복음 13-17 장에 잘 전개되어 있다. 이 장들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거하신 예수님의 삶,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나라, 그리고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통찰을 준다.

II. GOD'S LOVE FOR GOD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 A. The first expression of perfect love is found in the relationships within the Trinity. The Son loves the Father (Jn. 14:31), and the Father loves the Son (Jn. 3:35; 5:20; 15:9; 17:23). Their love is the foundation of all the love experienced in the kingdom.
완전한 사랑의 첫 번째 표현은 삼위일체들 관계 속에서 발견된다.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요 14:31), 아버지도 그의 아들을 사랑하신다 (요 3:35; 5:20; 15:9; 17:23). 이분들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사랑의 토대이다.
- B. *The Holy Trinity*: There is one God who forever dwells in three distinct persons who are coequal as divine persons. The Father, Son, and Holy Spirit each fully possess all of God's attributes. Each person is different from the others in function and authority in their relationship and work. Each person's work is unified, fully engaged with, and interdependent on the others' work.
거룩한 삼위일체: 신성으로는 동등하시지만 구분되시는 세 인격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충만하게 소유하고 계신다. 한 분 한 분이 역할부분에서나 관계상에서의 권위나 사역하심이 각각 다르지만, 그분들의 사역은 서로의 사역에 상호 의존적이며 또한 완전히 몰입하시고 통합되어져 있다.
- C. In John 13-17, Jesus taught on the union of the three persons in the Trinity—the Father lives in the Son, and the Son in the Father (13:32, 34; 14:10-12, 20; 17:11, 21-23). Thus, the three persons are one in heart, thought, and action, so that the one God acts as one and as three.
요한 복음 13-17 장에서 예수님은 삼위일체 안에서의 세 분의 연합을 가르치셨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아들은 아버지 안에 사신다 (13:32, 34; 14:10-12, 20; 17:11, 21-23). 그러므로, 이 세 분들은 마음에서나, 생각에서나, 행동에서 하나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신 하나님은 한 분으로, 또는 세 분으로 행하셨다.

¹⁰*“Believe that I am in the Father, and the Father in Me...The Father who dwells in Me does the works. ¹¹Believe Me that I am in the Father and the Father in Me...” (Jn. 14:10-11)*

¹⁰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¹¹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요 14:10-11)

²¹*“...they all may be one, as You, Father, are in Me, and I in You; that they may be one in Us...*

²²*The glory which You gave Me I have given them, that they may be one as We are one:*

²³*I in them and You in Me; that they may be made perfect in one, and that the world may know that You...have loved them as You have loved Me.” (Jn. 17:21-23)*

²¹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²²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 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이다.²³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 17:21-23)

D. ***Their relationships:*** The union in the Godhead reveals the nature, quality, and intensity of His love and relationships. These are the *model* and *source* whereby we relate to God and one another.
그분들 간의 관계: 삼위일체 안에서의 연합은 본성, 질, 그리고 사랑의 강도와 관계들을 나타낸다. 이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 서로간의 관계의 모델이자 원천이다.

1. They give us a picture of what perfect love is and of how God relates to God, how He relates to us, and how we relate to Him and others.
이것은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시는지, 우리와는 어떻게 관계하시는지, 또 우리는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는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림을 보여준다.
2. Each person of the Trinity enjoys and fully engages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others. Jesus has joy and enthusiasm in His love for the Father. He is moved in loving the Father and in being loved by the Father. His love is never mechanical. He is not disinterested or bored in His relationship with the Father.
삼위일체의 각 인격은 서로의 관계 안에서 서로를 즐기시며 온전한 관심을 가지신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향한 사랑에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은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것과 또 아버지로 부터 사랑 받는 것에 마음이 감동되신다. 그분의 사랑은 결코 기계적이지 않다. 그분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흥미를 잃거나 지루해하지 않으신다.

E. ***Their work:*** The three persons are each fully involved with every work of God (Jn. 10:38)—creation, the incarnation, healing miracles, the atonement, the resurrection (Jn. 10:18), etc.
그분들의 사역: 세 분은 하나님의 모든 일 (창조, 성육신, 치유의 기적들, 속죄, 부활 [요 10:18], 등등)에 각각 깊이 관여하신다.

³⁸“...believe the works, that you may know...the Father is in Me, and I in Him.” (Jn. 10:38)

³⁸...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요 10:38)

¹⁸*I lay it [His life] down of Myself...and I have power to take it again.* (Jn. 10:18)

¹⁸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버리노라 나는 ...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요 10:18)

F. God's eternal nature is humility. The Spirit delights in glorifying the Father and the Son (Jn. 16:13-15). Jesus delights to use His authority to honor the Father (Jn. 5:23; 8:49-54; 12:26; 13:31-32; 14:12; 17:1, 4-5, 22, 24; 18:19). He is forever the greatest Man and, thus, the greatest servant (Mt. 23:11). He will relate to us forever with humility and a servant's heart (Lk. 12:37).
하나님의 영원한 본성은 겸손이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 영광 돌리기를 기뻐하신다 (요 16:13-15). 예수님은 아버지를 존귀케 하는데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시길 기뻐하신다 (요 5:23; 8:49-54; 12:26; 13:31-32; 14:12; 17:1,4-5, 22, 24; 18:19). 예수님은 영원토록 가장 위대하신 인자이시기에 가장 위대한 종이다 (마 23:11). 그분은 겸손과 종의 마음으로 영원히 우리와 관계하실 것이다 (눅 12:37).

- G. The glorious truth of the union within the Trinity affects how we read the Scripture. We can gain insight into this grand reality by meditating on the details in the Scriptures of how each person in the Godhead relates to the others. When reading the Gospels, think on how the Father and the Spirit were deeply involved with joy in each of the works that Jesus did.
삼위일체 안의 연합의 영광스런 진리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에 영향을 미친다. 삼위일체의 한 분 한 분이 서로에게 어떻게 관계하시는지 말씀 안에서 세세하게 살피며 묵상하면 우리는 이 거대한 실체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복음서를 읽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이 예수님이 행하신 각각의 사역들에 기쁨으로 어떻게 깊이 관여하셨는지 생각해 보라.
- H. As we read each episode in the gospels, we should pause to **thank God** for the details of how the Trinity worked together and **ask for more insight**. We ask the Spirit to show us what each divine person **did** and **felt** and how **we are to respond**. Reading the Scriptures in this way can be like a treasure hunt into the beauty of God that fascinates and exhilarates our heart.
복음서 안에 실려있는 각각의 사건들을 읽을 때, 잠시 멈춰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세밀히 함께 일하셨는지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을 주시도록 구하라**.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한 분 한 분이 **무엇을 하셨고 느끼셨는지** 보여 주시고, 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길 구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 마음을 매혹시키고 기쁨에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안의 보물 찾기와 같다.
- I. The details of their relationship give us insight into Jesus' beauty, supremacy, and worth. It also gives us insight into the way that He loves us and how He wants us to love Him and others.
그분들 관계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예수님의 아름다움, 우월함, 그리고 존귀함에 대한 통찰을 준다. 이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사랑하길 원하시는 지에 대한 통찰을 준다.
- J. Our primary life goal and preoccupation needs to be focused on beholding God's love. This includes understanding, experiencing, and imparting the truth of His love to others. By beholding or seeing the quality of this love, we are more empowered to resist temptation, endure persecution, and press into God in the midst of various trials without drawing back.
우리의 주요한 인생의 목표와 몰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에 집중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 경험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것을 포함한다. 이 사랑의 질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유혹을 대적하고, 핍박을 견디며, 다양한 시련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능력을 부여받게 된다.
- ¹***Behold what manner [quality] of love the Father has bestowed on us... (1 Jn. 3:1)***
¹**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질적]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요일 3:1)**
- K. We are to make this the primary preoccupation of our life before, during, and after revival. We do not need to wait for revival or special seasons of visitation to engage deeply in this reality.
우리는 이것을 부흥 전에도, 부흥 동안에도, 부흥 후 어떤 시기일지라도 우리 인생의 주요한 몰입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 실체에 깊이 몰입하기 위해 부흥이나 하나님 방문의 특별한 시즌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III. GOD'S LOVE FOR HIS PEOPLE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 A. Jesus declared that He loves the redeemed in the same way or intensity that His Father loves Him (Jn. 15:9). He said that the Father also loves the redeemed with this same intensity (Jn. 17:23). Father, Son, and Spirit love the redeemed with all their heart, mind, soul, and strength.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는 동일한 강도와 방식으로 구속한 자들을 사랑하신다고 선포 하셨다 (요 15:9).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같은 강렬함으로 구속한 자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요 17:23).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께서 온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구속한 자들을 사랑하신다.
- ⁹***“As the Father loved Me, I also have loved you; abide in My love.” (Jn. 15:9)***
⁹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 15:9)
- B. Love, by definition, demands an expression—to be shared and multiplied. He wanted others to experience the joy of their experience of perfect love. God created human beings to participate in this glorious fellowship because **He is love**. God does not lack anything. He has no need. He did not create humans because He was lonely or discontent or lacked something emotionally. 정의에 의하면, 사랑은 나누어 지고 배가 되어지기 위해 표현이 요구된다. 주님은 삼위일체의 완전한 사랑의 경험에서 오는 기쁨을 다른 이들도 경험하길 원하셨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 영광스런 교제에 참여하도록 창조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부족이 없으시다. 그분은 필요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외로우시거나 불만족스러워서 혹은 감정적으로 무언가 부족해서 인간을 창조하신게 아니다.

IV. OUR LOVE FOR GOD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 A. The Spirit's first agenda is to establish the first commandment in first place in the Church (Mt. 22:37-38). Because of how He feels about us, He wants us to respond to Him with all our love. He created us in His likeness with the capacity to participate in this fellowship of the burning heart. God's very own love is imparted to His people by the Holy Spirit (Rom. 5:5). We love Him because He first loved us (1 Jn. 4:19). We are empowered to love by first receiving His love. 성령님의 첫 번째 과제는 교회 안에 첫번째 계명을 첫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다 (마 22:37-38). 주님은 우리가 우리 전부의 사랑으로 그분께 반응하길 원하시는데, 이는 그분이 우리에게 대해 그렇게 느끼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불타는 마음의 교제에 참여하는 능력이 있도록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이 소유하시는 사랑이 그분의 사람들에게 전이된다 (롬 5:5).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요일 4:19). 먼저 그분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사랑 할 수 있는 힘을 받는다.
- B. Jesus defined loving God as being deeply rooted in a spirit of obedience (Jn. 14:15, 21, 23; Deut. 6:1-9). There is no such thing as loving God without seeking to obey His Word.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순종의 영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정의하셨다 (요 14:15, 21, 23; 신 6:1-9).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추구하는 것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¹⁵***“If you love Me, keep My commandments...” (Jn. 14:15)***

¹⁵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 14:15)

V. OUR LOVE FOR OURSELVES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

- A. The redeemed are to love themselves in God's love and for God's sake. We love ourselves through the lens of the revelation of Jesus, His cross, and our great worth to Him. When we see ourselves and our destiny in God's love, it empowers us to love ourselves by His Spirit. Jesus delights in who we are in His love. He enjoys us enjoying His love for us.

구속 받은 이들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사랑한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계시,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는 큰 가치가 있다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과 부르심을 보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예수님은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즐거워하는 우리를 즐거워하신다.

³⁹“*And the second is like it: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Mt. 22:39)

³⁹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마 22:39)

- B. Bernard of Clairvaux called it *loving ourselves for His sake*—that is, to be jealous to be all that He called us to be for His sake. Jesus does not want us to walk in false humility that minimizes how much *He enjoys loving us* and how He wants us to *enjoy being loved by Him*. We magnify Jesus as we love ourselves in agreement with His love for us and honor His “investment” in us. He is glorified in us as we rejoice in His will, which includes *His enjoyment* of releasing His love in and through us. “God is most glorified in us when we are most satisfied in him” (John Piper).

클레르보의 버나드는 이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라고 말했다. 이는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 우리가 그분이 부르신 모든 것이 되기까지 질투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길 얼마나 즐거워하시고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을 즐거워하길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축소시키는 거짓된 겸손 안에 우리가 살아가길 원치 않으신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동의하며 우리에게 “투자”하신 하나님을 명예롭게 해드리는 것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높인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 안에서 기뻐할 때 영광받으시는데, 이것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분의 즐거움을 풀어내시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존 파이퍼).

- C. A profound transformation occurs in us as we accept His love for us. This is another expression of the fellowship of the burning heart. We love ourselves in His love without despising our appearance, gifting, or ministry assignment, regardless how small or difficult it is. Self-hatred results in a deep sense of rejection that damages our ability to love and receive love.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은 불타는 마음의 교제의 또 다른 표현이다. 우리는 자신의 외모나 은사, 사역의 임무 (얼마나 작은지 혹은 얼마나 어려운지와 상관 없이)를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 자기 혐오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우리의 능력을 손상케 하는 깊은 거절감을 낳는다.

VI. OUR LOVE FOR OTHERS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

- A. We are to love others “as” Jesus loves us (Jn. 15:12). We do this to the measure that we see how He loves us and loves others—even those who mistreat us. Our love for others is an expression of our love for God (1 Jn. 4:7-12). We will forever delight in one another as God loves us.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만 한다 (요 15:12).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른 이들을 (그들이 우리를 잘못 대할 지라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아는 만큼 우리는 이를 행할 수 있다.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의 표현이다 (요일 4:7-12).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영원토록 서로를 기뻐 할 것이다.

¹²***This is My commandment, that you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Jn. 15:12)

¹²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 15:12)

³⁹***“...and the second is like it: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Mt. 22:39)

³⁹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마 22:39)

- B. Jesus wants us to enter into how He sees and feels about others—by seeing His bigger storyline. We feel deep emotions of zealous love when someone comes against a person we love deeply. We love fellow believers who mistreat us because God loves them just as He loves God (Jn. 15:9; 17:23). We participate in the fellowship of the burning heart by walking in love for others.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고 느끼시는 차원으로 들어오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크신 이야기 줄거리를 얹으로써. 어떤 사람이 우리가 깊이 사랑하는 이를 대적하면 우리는 질투하는 사랑의 깊은 감정을 느낀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동료 믿는 자들을, 비록 잘못 대우할 때조차도 사랑해야 한다 (요 15:9; 17:23).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함으로써 불타는 마음의 교제에 참여 할 수 있다.

VII. SALVATION: EXPERIENCING DEEP RELATIONSHIP WITH GOD (JN. 17:3)

구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경험 (요 17:3)

- A. Jesus revealed that the essence of eternal life is to know God—this speaks of experiential knowledge, which is more than intellectual information. Salvation is an invitation to participate in deep fellowship with the Godhead (1 Cor. 1:9; 1 Jn. 1:3). It is the *why* behind the *what* of creation and redemption. Salvation is so much more than escaping hell.
 예수님은 영생의 본질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계시하셨다. 이것을 지식적 정보 이상인 경험적 지식이라고 말한다. 구원은 삼위일체와 함께하는 깊은 교제에 참여하라는 초대이다 (고전 1:9; 요일 1:3). 이것이 창조와 구속에 대한 ‘무엇’ 뒤에 있는 ‘왜’에 대한 답이다. 구원은 지옥을 벗어나는 훨씬 그 이상이다.

³***“This is eternal life, that they may know You,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Jn. 17:3)

³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 17:3)

- B. Make it your primary life vision to participate in the ultimate reality of the kingdom, which is the ***fellowship of the burning heart***. Examples of this include the disciples on the road to Emmaus (Lk. 24:32) and John the Baptist (Jn. 5:35)—who spoke of a baptism of fire (Lk. 3:16). It was seen at Pentecost (Acts 2:3) and eventually will empower all God’s people (Isa. 62:1).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실체인 **불타는 마음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을 당신 삶의 주요한 인생의 비전으로 만들라. 이것의 예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눅 24:32)과 불 세례(침례) (눅 3:16)에 대해 말한 세례(침례) 요한(요 5:35)을 들 수 있다. 이것이 오순절(행 2:3)에 보여졌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능력 있게 할 것이다(사 62:1).